

화상으로 신음하는 백두대간

동해안 산불 생태계 파괴 '여의도 140배' 농어업 피해 심각...호우·태풍 등 무방비

"태우거나 파괴하거나 물을 대거나 하는 일이 없으니, 이것을 자연계를 지켜 가는 행위라 부른다. 성읍·부락·산림·천택(川澤)·잘 꾸며진 누각과 온갖 길과 모든 다리와 자연의 골과, 모든 곡식·콩·삼·보리나 꽃과 과일·초목·숲 따위를 응당 태우지 말며, 응당 파괴하지 말며, 응당 그것에 물을 대지 말며, 응당 배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 여러가지 물건들은 어느 하나도 사람이나 축생에게 있어서 유용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

러므로 저 종생들에게 아무런 죄도 없는 바에, 그 사용할 물건들을 태워 괴롭히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 <니건자경>

연 9일동안 강원 동해안 일대를 불태운 산불은 <니건자경>의 가르침대로 자연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새삼 일깨워 준다. 울창한 산림이 거대한 수렁이로 변한 숲은 그 자체만이 '죽음의 땅'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생태계 파괴라는 커다란 재앙을 초래하고, 농토와 바다를 오염시켜 우리의 삶마저 위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산불로 먹이사슬이 끊기고 새싹의 이동이 차단됨으로써 생태계에 변화를 일으키는 생태학적 피해면적을 불태운 산림면적(1만4200여ha·서울 여의도의 47배)의 3배인 4만여ha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평균 5cm까지 170~180도의 열기가 전달돼 땅속에 묻혀 있던 휴면상태의 식물종자는 물론 버섯포자 곰팡이 이끼류 등 모든 생명체의 씨앗들이 파괴됐으며, 특히 백두대간이 야생동물과 식물들의 중요 이동경로임을 감안할 때 생

태계의 대대적 혼란은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또 불로 인해 생태계의 무기·유기·물리적 환경이 모두 바뀔으로써 화재 이전 상태로 복원되기까지 최소 50년에서 100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은 자연을 소홀히 여긴 대가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실감케 한다.

산불이 난 인근 농·어업이 입을 피해도 생태계 파괴 못지 않게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비가 조금이라도 내리면 불에 탄 재와 검은 토사가 논밭과 인근 연안어장으로 흘러내려 농토와 바다의 '사막화'를 불러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96년 산불로 전곡·소라·성게 등의 어획고가 70% 이상 줄어들면서 큰 피해를 본 고성군 어민들은 이번 산불로

아예 어장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고 있다. 또 당장 여름을 다투고 집종호우와 태풍을 어떻게 견뎌낼지도 고민거리가 됐다.

'갈대'를 통해 인(因)과 연(緣)의 법칙을 말한 <상응부경전>의 이야기는 평범하지만 자연과 인간이 풀이 아닌 하나임을 일깨워 주기에 충분하다.

"두 묶음의 갈대단이 있다. 이 갈대단들은 서로 의지하고 있을 때는 서 있을 수 있다. 이처럼 무엇이 있으면 저것도 있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갈대단 중에서 어느 하나를 치우버리면 다른 갈대단도 따라서 쓰러지고 만다."

하나의 존재가 홀로 독립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존하고 관계되어 있다는 불교의 연기법(緣起法)은 자연의 생명력이 곧 인간의 생명력을 말한다.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불탄 백두대간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그것은 곧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4·13 총선은 끝났다. 선거전 쟁에 이긴 자는 자칫 오만해지기 쉽고, 패배한 자는 좌절하기 쉬운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승자는 겸허해지고 패자는 패배를 인정하고 반성의 계기로 삼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나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일이다.

총선결과와 국민의 뜻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기대를 받는 부분은 386세대들이 등장하면서 거물 정치인들이 퇴장한 것과 여성들이 국회에 다수 진출했다는 사실이다. 젊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진 국회의원의 등장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걸고 있다. 또 여성에게 가장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우리 국회에 여성에게 좀더 폭넓은 기회를 부여해 준 것도 희망적이다.

이번 총선은 역대 총선 가운데 국민투표율이 제일 저조했지만 총선연대가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하는 등 시민의 정치참여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게 나타난 선거이기도 하다. 한편 야당인 한나라당은 제 1당으로서 의석을 확보했지만 경상도지역에서 지역바람을 타고 싸늘이를 한 것으로 국민들은 보고 있다. 또 여당 역시 야당과 다를 바 없으니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는가. 시민들은 21세기를 시작하여 새로운 정치, 새로운 국회, 새로운 정책에 대하여 어느 때보다 강한 열망을 표출하고 있다.

16대 총선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질책을 정치인들이 겸허히 수용하는 것부터 16대 국회는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새로운 천년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에 걸맞는 선진적인 정치를 하지 못할 때에는 이미 시작된 시민들의 국민적 저항운동에 봉착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경실련이나 총선 시민연대 외에도 교수나 변호사단체 등 사회각계 각층의 단체들의 밀로로부터 솟구쳐 나오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하나의 혁명을 예고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평상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치인들이 스스로 자정의 노력을 해야 한다. 이 길에 여당은 야당을 존중하고 야당은 여당이 올바른 국정을 펴나가도록 견제하고 협력해야 한다. 여야가 서로 협력·존중하지 못한다면

고 파벌과 투쟁을 일삼으면서 어찌 남북과의 화해를 논하고 통일의 염원을 국민에게 심어 줄 수 있겠는가? 여야 영수회담은 우리의 국난을 타개하고 우리 민족의 나아갈 원대한 꿈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정치를 논하고 국민을 섬기는 입장에서 일거수·일투족을 신중하게 해 주었으면 한다.

지금 우리 앞에는 국가적인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IMF 환란도 아직 극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총선을 치름으로써 정치·경제·교육·문화 등 모든 면에서의 개혁작업이 중단되고 있으며, 민생과 관련된 법률도 처리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오는 6월에 있을 남북한 정상회담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공동대처 방안을 차분하게 마련해야 한다. 서해안 지역에 발생한 국제역이나 동해안 지역의 발생한 산불 등으로 동요되고 있는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노력이



한복룡 (충남대학교 법과대학장)

정치인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여야가 대승적인 경지에서 협력하고, 시민단체들도 불순세력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자기정화의 노력을 계속할 때,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할 것이며 나라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리라 생각된다.

상생과 정의정치 '갈망'

대화와 협력의 정치만이 상생(相生)의 정치요, 번영의 길이다. 투쟁과 반목·질시가 난무하는 정치는 상극(相戾)의 정치요, 파멸의 길이다. 정치인들부터 평상심으로 돌아가 서로를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자제로운 정치를 해야 한다. 그러면 자연히 백성(百姓)들도 평화와 질서를 터득하고 존중하게 된다. 서울의 정의(正義)가 평양의 부정의(不正義)가 되는 역사적 모순을 이번 16대 국회에서 극복해 주기를 바란다.

한마음이 청정하면 온 세계가 청정하니 우리의 모든 업장을 함화하여 우리나라의 앞날이 평평으로 가도록 되도록 우리 모두가 평상심을 회복하자. 이 길에 진정한 평화의 길이요, 통일의 길이며, 인류공존의 대열에 우리가 앞장서는 최선의 길이 될 것이다.

"한-미 주둔군 협정 개정 시급"

변호사협 세미나서 강조

최근 정부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17일 'SOFA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공청회에 SOFA 개정이 시급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불평등 조약인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이 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한미군에 치외법권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SOFA가 얼마나 불평등한 조약인지는 잘 알려져 있다. 일례로 매년 주한미군이 저지르는 살인·강도 등의 범죄는 92년 이후 연평균 603건에 이르

지만 우리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한 경우는 연평균 21건에 불과하다. 또 군산 미군기지의 경우 그 동안 하루에 3,000여 이상의 오폐수를 방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미군이 주둔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불평등이 심하다.

<대살차니건자소설경>에 "통치자의 첫째 의무는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고, 백성의 어버이로서 그 백성을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우리 국민의 인권과 환경권마저 위협하고 있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개정을 위한 정부의 책임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장애인 고용의무 '기업 나몰라'

10곳중 9곳 안지켜

기업체 10곳중 9곳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현재 장애인 2% 고용 의무가 있는 근로자수 300만 이상 1919개 사업체 중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곳은 10.3%인 197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상 사업체들의 전체 근로자 195만여명중 장애인 근로자는 1만여명으로 집계돼 장애인 고용률 역시 의무고용률(2%)의 4분의 1 수준인 0.54에 머물렀다.

<중일아함경>에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더라도 병든 이에 배운 복덕은 부처님께 올린 공양에 비할 것이 아니다"는 말이 있다.

장애인들이 '마음의 장애'마저 느끼지 않도록 기업들부터 앞장 서야겠다.



에너지 아껴쓰시다 환경운동연합,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 500여명은 17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에서 '에너지절약 실천 범국민대회' 행사를 마친 후 서울역까지 기구행진을 벌였다.

월급중 1% 10년 동안 모아 불우이웃돕기

전국경제인연합회 사무국 직원들이 10년동안 월급의 1%씩을 모아 불우이웃돕기 활동을 해 온 사실이 알려져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사무국 직원들은 90년 8월 '전경련 펜션트 클럽'을 결성한 뒤 각자 월급에서 1%씩을 떼어 기금을 마련, 고아원과 양로원 위로방문, 소년소녀가장돕기, 환자 치료비 지원, 장애인가정 방문 등 봉사활동을 벌여왔다.

결성 당시 42명이었던 회원이 현재는 73명으로 늘었고, 올해엔 4,500여만원의 기금을 모아 독거노인 지원과 장애인 가정 학비 지원, 환자 치료비 지원 등 불우한 이웃을 계속해 도움을 방침이라고.

<잡아함경>의 "남에게 고통을 주면서 얻은 재물은 거창하게 베풀다 해도 깨끗한 재물로 베푸는 작은 보시의 공덕에는 비교할 수 없다"는 가르침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의 작은 정성은 진정한 보시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다.

불자정보

불자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천이정 개제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봉축행사 동참 연등 만들기

봉사활동 동참하실 보살님 연락바랍니다

※ 유능한 홍보보살님을 모집합니다. (45세 - 50세)

논현동 작은절 공관속의

0502)444-8484

권 민속 불교 백화점 // 전통 민속 국악사

◆본점 1층(50평) 금불상, 금평화, 승복, 서적, 유가일절
 ◆2층(50평) 불상, 탱화, 전시장
 ◆3층(50평) 북, 장구, 농악복, 국악기, 일절

지점 1층(25평) 옥불상, 목불상, 특수회화, 수입불상 일절 불교, 무속, 민속일절

지점 3층 2001년 국내 최대 메리트 마트형 시설과 도매상권을 갖추어 OPEN

민속불교백화점은 국내최대매장으로 신상품과 가격을 최저가격으로 판매합니다.

본점 0345)495-4848, 4845, 4846 FAX491-8548
 지점 0345)417-4848, 480-4848, 406-4310, 4311
 불교/무속/민속용품, 전국도매 불교용품/불교사/만물사 개업/창업 사업을 원하시는 분 상세히 상담하여 드립니다.

불자들을 위한 생활안락 염가판매 각종 중국차와 다구도 있습니다

茶侶

서울 구반포 한신종합상가 1층 니열 15-2호 02) 3477-533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기도하실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052) 254-1929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문정동
 ◆ 법당 30평, 삼존불
 ◆ 특징 : 즉시 법회 가능 시설 완비

◆ 가액 : 보충금 3천 원세 40만원

011)775-8200

별장지 전원주택지 암자터 안내

happy 700 평장을 아십니까? 인간의 생체에너지 활성에 가장좋은 700고지에 위치한 평장 강인도 특유의 뛰어난 산세와 맑은 계곡 물이 휘감아 흐르는 곳에 부처조성이 끝난 별장지를 분양합니다. ※ 가족묘지(명당자리)도 분양 합니다

◆ 위치 : 둔내 스키장 뒷편
 ◆ 총평수 : 10,000평
 ◆ 평당가 : 5-8만원
 ◆ 분양평수 : 300평이상
 ◆ 거리 : 서울에서 1시간 50분

018)230-8048
 018)462-0709

무엇을 해도 좋은 수도권 남부 노르자위 땅을 사정상 시세 절반값(3,500만원~50만원)으로 드리겠습니다

◆ 위치 및 평수 : 경기 평택시 전위면 동천리 200평부터 15만평까지 평수다양, 분할 가능(필요한 만큼 가능함)
 ◆ 용도 : 사할, 남골당, 연수·연구원, 묘지, 토굴, 전원주택지 등
 ◆ 교통 : 오산IC 10분, 2002년 개통예정인 하북 전철역 5분거리에 위치
 ◆ 특징 : 무봉산, 주산, 주봉포함, 산에 100여평 둘둘이 있고 전기, 전화, 수도 완벽

0333)662-6677/011)264-6677 Fax 0333)663-667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정릉)

02) 917-3363

◆ 사람을 찾습니다 ◆

성명 : 장선희 (700330-2808311) 화엄사

0582)534-8718
 011)533-8718

역학 수강생 모집

▶과목: 사주, 육욕, 신수, 작명, 관상
 ▶과장: 기초반, 연구반, 자격증반, 창업반
 ▶시간: 오전10시~12시, 오후 3시~5시
 저녁 7시~9시 (월~금, 추5일)
 ※ 매주 토요일 관상학 특강: 오후 3시

▶강사: 임윤문 원장(명학비해 외 20여권 저술) 김희선 선생, 관상학의 달인 신기원 선생
 ▶기타: 사주강정 의뢰하실 분(30원 입금후 전화) 제일은행(105-20-163426) 임윤문
 ▶문의: 02)824-3517

청운역리학원

법률 수강생 수시 모집

매주 월·화요일 오전 10시~5시
 기간 6개월

■ 초심반: 각단 예경의식
 ■ 발심반: 각단 불공식 의식
 ■ 자결반: 사십구계의식 및 열산제
 ■ 연구반: 바리새 승무작법 사물일절

대한불교 남파종회 법륜연수원
 051)332-0289/018)396-3022